

## 假想丁國의 畜産不条理!



신 정 일  
〈유길농원 영업부장〉  
〈본지 편집위원〉

..... 우리 축산업계가 이제 선진국계열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한 발전과 .....  
..... 영광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부조리는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업계의 가상적인 예 .....  
..... 를 쓴 것이다. — 필자주 —

假想丁國의 상황도 現在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므로서 후진국으로부터 중진국의 대열로 뛰어 올랐으며 국민소득 1,000\$의 선진국 고지를 향하여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 그들의 국민성도 우리들과 같이 근면하며, 인정이 많고, 두뇌가 우수하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달성에 깊은 희망적인 信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國家가 부유해짐에 따라 畜産物의 소비도 自然히 급격한 生長추세를 보이고 있고, 國民의 소비량에 적합한 物量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每年 畜産物의 生産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다. 가상정국의 畜産人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國民의 體力증진과 두뇌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인 畜産食品공급에 대비한 만반의 계획과 결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하에서 알게 모르게 시행하는 암적인 부조리가 가상정국의 畜産業界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그들의 畜産發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 사료효율 5:1

가상정국의 수도 B市에 있는 어떤 사료회사 의 모간부는 3年동안에 1천만원의 개인적인 빚을 모두 청산함과 同時에 3채의 주택까지 마련했다. 이 사료會社로 납품되는 각종 영양제는 사료에 첨가되어 일반 양계장의 부로일러 위속으로 섭취된 것이 아니라 그 간부의 배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정국의 육용업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료효율이 8週 기준으로 약 2.5:1이 되고 있으나 上記 사료회사의 사료를 이용한 양계업자는 거의 5:1의 아주 나쁜 효율을 나타냈었다.

가상정국의 여러 사료회사에 납품되는 단맛 사료의 납품부정은 거의 상식화 되어 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모두 그러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에 밝은 귀를 가지고 있는 양계인이라면 대개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의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어분 10 ton이 납품될 때 납품서에 기재되는 물량은 으레히 실제수요량보다 많이 올려진다. B급

# 편치라인

의 단미사료를 납품하면서 A급의 상품으로 주문서에 표시된다. 가상정국에 있어서 이러한 단미사료 납품부정은 일반 개인회사보다 축협과 같은 단체에 더욱 심하다. B축협, Y축협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료회사의 간부들이 개인적인 치부를 하면서 순박한 양계인들을 골탕 먹이는 예는 허다하다.

## ● 신비의 하얀가루 “비타민 E”

종계에 있어서 산란율, 수정율, 부화율 등에 미치는 Vitamin E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종계에 투여되는 고단위 수용성비타민 제제에는 반드시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정국에 있어서는 수용성비타민제제 이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타민 E의 원포장이 종계장에 밀매되고 있다. Vitamin E의 원포장이 제약회사로부터 어떤 통로를 통하여 종계장에 도달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품화되어 일반 양계장에 보급되어야 할 원료가 뒷구멍으로 유출출된다는 사실은 생산된 상품의 역가 신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假想丁國의 동물약품 역가 신빙성에 있어서는 다른 면에서도 고찰되어지고 있다. 당국을 통하여 수입된 원료가 각 동물약품회사로 배정될 때 A회사보다 적게 배정받은 원료로서 B회사는 A회사보다 더 많은 시판상품을 제조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A회사가 自産제품에 원료의 함량을 기준보다 더 많이 포함시켰거나 아니면 B회사가 기준보다 더 적은 원료를 첨가하였거나 둘중의 하나가 된다. 후자의 경우 결국 양계인들은 약품을 닭에서 투여한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약으로 잘못 투여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는 일부 양계인들은 그들이 사용한 약품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 ● 째뽕되는 종계

가상정국의 부화장에 있어서 병아리 판매정

책은 매우 아전인수격이다. 생산되는 조생추 수량이 2만수이면 비수요기의 판매대비책으로 4만수규모의 신청을 양계인들로부터 받는다. 양계인들에 대한 부화장의 횡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종계의 입추와 도태를 적절히 계획하므로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판매정책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신청을 받아 놓고보자하는 사고방식에서 부터 약추, 계약불이행등의 일방적인 횡포가 자행되는 것이다. 물량이 모자랄 때 약추가 섞인다는가 덤이 없다는가, 불량추가 성행한다는 것등은 이미 양계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부화장은 그들의 종계장에 입추된 몇 종류의 종계를 한곳에 야에 섞어버리고 제일 능력이 우수한 품종으로 일괄적으로 시판하는 예가 매우 많다. 2종류 이상의 종계를 구입한 부화장은 능력이 우수한 계통의 숫컷으로 전부 인공수정시킨후 단일 품명으로 모두 시판된다. 이러한 다른 계통끼리 교배된 병아리는 여러형태의 육성 결과를 나타낸다. 가상정국의 양계인들은 이제 부화장경영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양심적인가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경향이다.

## ● 양계장 모퉁이에 묻히는 백신

일반 양계장에 근무하는 관리원들은 그들의 처해있는 환경을 매우 불만스러우게 생각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발달된 메스컴을 통하여 드라마 속의 환상적인 인물을 동경한다든지 화려한 생활무대나 자가용층의 유람(?)에 대해 피상적인 선망의 눈길을 보낸다. 부유층이 얼마나한 각고의 노력끝에 쌓아 올린 결실이라든지 화려한 생활무대가 얼마나 허울좋은 빈껍데기라는 등의 이성적인 분석은 전혀하지 않고 다만 닭똥치기나 작업에 싫증을 느끼고 게으름을 피운다. 관리원들은 경영주의 눈을 피해 뉴깻슬백신을 양계장의 모퉁이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고 접중한 것으로 보고한다. 가상정국의 양계장에 뉴깻슬이

# 편치라인

발생한 뒤 철저한 원인규명을 할 때 나타나는 사실은 너무나 엉뚱한 관리원의 부조리가 있다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일반 양계장 특히 종계장에 납품되었던 높은 가격의 약품들이 그대로 다시 흘러나와 물레 판매되고 있는 예가 있다. 종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중에서 그들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종계에 투여할 약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실관리가 겹쳐진 종계에서 생산된 초생추는 그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 또한 피해는 일반 양계인에게로 돌아간다.

## ● 농장 정보원

假想丁國의 대규모 축산인中的 한사람이 비공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예가 있다. “농장은 가급적이면 분산치 말고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농장에는 일에 필요없는 정보원이 한 사람씩 꼭 있어야 하는데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농장마다 정보원을 들으므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말은 경영주가 자기 농장의 직원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와같이 가상정국의 축산종사원들中에서는 경영주로부터 철저히 불신받고 나쁜 주거 환경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는 예가 매우 많다. 가상 정국의 축산업도 이제 여러 모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곳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직원유동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 ● “예”와 “응”의 중간소리 “엥”

假想丁國에는 일반 산업계나 축산업계를 막론하고 조합 혹은 협회등과 같은 영리혹은 비영리단체가 매우 많다. 그 단체들의 임무는 물론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구성된 혹은 그 업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물

론 단체와 관계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봉사적인 태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예가 간혹 있어 업계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가상정국의 협회나 조합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평가는 “예”와 “응”의 중간소리 즉 “엥”(꼭 이렇게 표기할수는 없지만)이라는 발음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전화를 통하여 관제되는 사람과 업무를 협조할 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물론 “응”이라고 통화한다. 그러나 “예”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예”의 발음을 하지 않고 “응”과의 중간소리 즉 비음인 “엥” 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므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라고 했는지 “응”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하게 한다. 그러다가 불손하다는 상대방의 반발이 있으면 재빨리 “예”라는 발음쪽으로 기울어지고 별 반발이 없으면 점점 더 “응”이라는 소리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지다가 결국 상대방을 “응”으로 대답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게끔 한다. 이러한 생활 혹은 근무태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합이나 협회 등의 직원으로서 능력평가를 받는 한심한 단체가 간혹 가상정국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푸른하늘을 쳐다보고 한마디 “엥 먹어라”하고 외치고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중얼 거렸다 “18”』

<假想丁國의 햄릿中에서>

